



서기보고서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시작이 있다

아마레쉬와르 갈라 교수

동료 여러분에게 이 도전적이고 시의적절한 회의의 마지막 세션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회의의 마지막 세션이지만 지금이야말로 아태지역과 전 세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증진이라는 우리 공동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긴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을 소개해 주신 종합토론의 좌장 세실 듀벨 유네스코 무형유산과 과장에 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지닌 참가자들의 발표가 있는 후 마지막 세션에서 발언을 한다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논쟁, 주장 그리고 비판을 통해 전 지구적인 동시에 지역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회의가 개최된 한국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우리가 이 분야에서 기울여 온 노력을 잠시 되돌아 볼 수 있었으며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었다. 본 보고서의 서두에는 개념적인 성찰과 논의를 기술하고 있는데,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단, 필자의 보고서에는 발언자의 이름을 모두 거명하지는 않는다.

각기 다른 분야의 배경을 가진 전문가, 정부 관계자 그리고 공동체가 모여 진행된 이번 회의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무형유산협약과 이행지침에 관해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 우리는

주최 측인 아·태무형유산센터가 보여준 원활한 회의 운영과 호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박성용 소장과 직원들, 자문위원장인 임돈희 교수, 문화재청 이진무 청장에게 감사를 전하는 바이다. 본 회의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무형유산보호의 과제와 기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했다. 아이까와 교수와 듀벨 과장이 이곳에 모인 전문가들과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 하였다.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협약이 채택되고 이행되어 온 과정과 목적, 이행 지침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관심과 기회를 확인했다.

지난달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무형유산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연설을 통해 10년 전 자신이 유네스코 사무총장으로 부임했을 당시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의 관리에 있어 균형을 유지해온 경험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0년간 유·무형유산을 다루는 방법의 균형을 찾고, 남북의 국가 사례들을 통해 문화간 대화라는 새로운 성과를 이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전체적으로 주제토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임돈희 교수는 아태지역이 탈식민주의적 사고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태지역은 더 이상 식민지배를 받고 있지 않고, 각자의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관행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유산에 대해 사고하는 방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임 교수의 발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근원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논쟁 거리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탈식민주의 담론은 자유국가이자 독립국가인 인도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뉴델리 자와하랄 네루대학교에서 유엔 탈식민지화 과정의 마지막 시기에 교육받은 필자와 같은 사람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인도는 아태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경험에서 나온 패권주의적인 유산관리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떠안고 있다. 이런 유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황폐화된 유럽의 관심이었던 서구식 유산사업이 급속한 성장과 기부자나 구호단체를 통해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이런 낯선 지식체계의 유산은 하나는 자연, 다른 하나는 문화라는 병행 과정 속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1972년 세계유산협약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국제문화발전위원회가 세계유산지역을 분석 했을 때, 아프리카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사례가 드물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다. 유럽에 세계유산이 많은 이유는 세계유산협약의 선정기준이 유럽적인 관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1994년 일본 나라Nara에서 개최된 나라회의에

이르러서야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과 진정성 개념을 검토하게 되었다. 유산보존에 있어 영속성과 진정성의 불이원성 원칙을 통해 진정성이 문화적으로 맥락화되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다른 유산의 가치나 판단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무형유산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이 논의된 것은 이 때가 최초이며, 이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필자는 지속가능한 유산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에 대해 발표하면서 대표 하나를 제시하였다. 이 도표는 실제로 나라 결과보고서로도 출간되었다. 저작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표는 터키 크리크 근처, 크로커다일 홀의 모래, 북서 오스트레일리아의 킴벌리에 살던 200개 공동체 출신의 원주민 노인들이 고안한 것이다. 이 그림은 선조들에 의해 구전된 '문화는 땅에 쓰인 지도이다'라는 말처럼, 원주민들이 그들의 유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설명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지도를 읽으려면, 무형유산의 수호자들에 대해 알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연관성과 세계관, 그리고 무형유산이 그들이 호흡하고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서 지속성을 찾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땅과 집단정체성 그리고 땅에 종속된 문화적 자긍심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는 2007년 9월 채택된 '토착민권리에 관한 유엔선언'에 의거하여 토착민 공동체의 무형유산을 시급하게 보호해야 한다.

듀벨 과장이 언급했듯이, 이번 회의는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무형유산 협약 하에 대표목록과 긴급보호목록의 첫 등재가 결정된 정부간위원회 회의 후에 열린 최초의 국제회의라는 점에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제 잠시 멈추어 생각할 수 있는 이정표에 도달했고, 듀벨 과장이 조심스러운 관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담론을 형성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논의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어떤 공동체의 이해당사자나 전문가와 연구자들에게는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방적,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범위를 정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우리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대표목록과 달리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된 무형유산이 적었다는 점이다. 역설적이게도 긴급보호라는 것이 무형유산협약의 초안 작업에 추동력을 제공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가 그동안

친숙했던 세계유산협약에 관한 지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수많은 훈련 프로그램과 다양한 매뉴얼, 많은 예산이 유네스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규범 중 하나인 세계유산협약을 장려하고 강화하는 데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참가자들은 우려를 표했으며 무형유산협약의 보호를 위해 이 점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끼와 자문관은 세계유산협약의 핵심이 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무형유산협약의 주요사항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무형유산협약에는 무형유산간의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듀벨 과장과 모든 참가자들은 무형유산의 전달자와 전승자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진정성은 무형유산협약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하지는 않는다.

무형유산보호에 있어 유적과 사물에 집중하는 지배적인 생각은 적절한 역량 강화 방식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사고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파트너십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즉 주요 이해당사자, 그리고 무형유산의 전승자가 있으며, 그 다음으로 연구자나 기관, 전문가, 무형유산의 긴급 보호를 도와주는 촉매자의 역할을 하는 광범위한 인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보호과정에서 협력 메카니즘을 제공하는 정부나 국제기구들이다. 자크 데리다(Jacque Derrida)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끝이 없다고 언급한바 있다. 무형유산의 보호는 계획이나 일반적인 관례에 기초한 이점표적 접근법이 존재할 수 없으며, 무형유산의 보호활동은 지속되는 유기적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가자들은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우리는 무형유산협약의 보호와 이행을 위한 NGO의 역할에 관해 논의했다. 아부다비에서 열린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에서는 NGO와 공동체에서 참가한 전문가들이 모여 NGO 회의를 개최했다. 국제사회과학협회에서 근무하는 젊은 멕시코 동료인 크리스티나 아메스쿠아(Ms. Cristina Amescua)는 NGO 대표 발언문을 통해 시민사회의 메카니즘을 묘사했다. 몇몇 나라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공동체 기반 기구(CBO)의 참여였다. 아부다비에서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NGO나 CBO의 참여가 전혀 없었다. 필자는 5년간의 남아프리카 공동체 참여 경험을 통해 CBO가 아프리카에서 매우 긴밀하고 영향력 있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비슷한 예로, 아직 아태지역에서도 시민사회 메카니즘이 관찰되거나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유산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NGO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

다. 유엔 심사관 *accreditation officer*이 정상회의에서 심사과정을 진행했을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력 관계에 대해 놀람과 동시에 실망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상회의에서 상당수의 NGO는 북미나 서유럽에서 온 참가자들이었다. 리오 지구정상회의의 주요 결과물인 '지역 아젠다 21'은 이러한 국가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그랬듯이, 우리는 공동체가 스스로 만드는 메카니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NGO를 지원하는 기부자들은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인지하는 한편, 그들의 개입이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 2005년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과 관련 아크라 실행지침은 기부에 있어 윤리적인 관행을 요구한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의 주최인 엠베키 *Thabo Mbeki*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참여를 위한 역량강화의 기본틀로 아프리카 르네상스의 철학을 주장했다. 이 자리의 참가자들은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배울 것을 언급했으며 이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는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지식과 경험을 다른 지역과 나누어야 할 것이다.

어떤 참가자들은 유산산업 *heritage industry*에 만연하는 잘못된 이해와 고정관념이 팽배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어떻게 우리가 식민시대와 탈식민지 건설과 같은 양분론적인 폭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들은 유형과 무형, 자연과 문화, 동산과 부동산, 전통과 현대를 포괄한다. 어떻게 우리가 아태지역과 다른 지역의 문화다양성의 맥락을 인지하고 발표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아태지역에서 강력하게 인식되고 있는 이원론을 논할 때는 비판적인 사색이 필요하며, 전통지식 체계를 통한 교정 작업은 통합적인 접근법이 요구된다.

진정성, 우수성, 미학, 중요성, 결작 등과 같은 용어는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비판적인 도구를 제공하며 질적인 확인은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와 중요성을 가진다. 흔히 문화다양성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고들 한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다양한 문화적 의미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문화간 대화는 문화공동체와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 사이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정 무형유산을 존중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문화간 대화를 제한한 채 무형유산협약만을 증진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먼저 논의하는 것이 무형유산협약이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아이까와 자문관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개념적 엄격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형유산 사례를 탐구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언어와 공동체의 맥락에서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유산이 진화한다는 공동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첫 번째 목소리 *First Voice*의 지속성과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할 때, 그들의 생명력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주어진 시간 내에 살아있는 유산을 기록화하고 목록화하여 고정화할 수 있을까? 마지막 패널 토론에서 한국학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렇다면 공동체에서 무형유산의 생명력 그리고 지속가능한 유산발전이란 무엇일까?

아태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공동체와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한 이해와 전달자, 개인, 연구단체의 개념 등을 통해 무형유산협약을 역량강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민주적인 협약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협약에서 갈망해 왔던 바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이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헤이그 협약에서 말하는 문화유산은 유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지역 문화적 맥락에서는 문화유산을 매우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무형유산은 협약과 세계의 문화다양성 회의에서도 수차례 언급되었듯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태지역의 문화다양성 존중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아태지역에서는 종종 언급되지만, 태평양 섬나라에서는 관심 밖이거나 종종 잊혀지기도 한다. 태평양 섬 박물관협회에서 제정한 태평양 박물관과 문화기관 윤리강령은 태평양에서 무형유산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우리의 피지 동료는 *First Voice*를 통해 이들이 어떻게 피지의 14개 지방에 걸쳐 있는 전통지식과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지도화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그는 무형유산과 공동체 안에서 지도화한 자료의 생명력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공동체는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회의 중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970년대 문화민주주의가 장려되면서 연구자들은 공동체라는 개념을 다른 맥락에서 연구하였다. 그러나 여기 모인 참가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개념은 무형유산과 그 이익단체를 보호하는 이해당사자 공동체의 의식이란 공동체를 정의하는 내부인의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리 박사는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베트남에서는 생태박물관학을 건설적이고 유용한 방법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다 고팔라크리슈난 박사는 이 부분을 상당한 과제로 생각했다. 공동체가 어떻게 스스로를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녀는 깨달라 행정구역을 이용했는데 이런 행정적인 지역구분이 얼마나 유용할까? 우리는 문화지리학자들이 사용하는 문화지역에 대해 논할 수 있을까? 공동체는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외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우리는 단 하나의 공동체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문화적 경계를 가로지르며 살아가는 다수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지금까지도 논의되어 왔고, 의심할 여지 없이 앞으로의 유사한 논의에 있어서도 초점이 될 것이다. 정의한다는 것은 아마도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해된 의미를 담는 것일 것이다. 아태지역의 몇몇 언어에서는 ‘사람과 사람들’이 비교할 수 있는 용어들로 사용된다.

2003년 무형유산협약은 다른 어떤 협약보다도 훨씬 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참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민사회 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량강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인가? 비록 우리가 강력한 공동체의식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지구화의 힘을 망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무형유산과 공간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타파할 수 있겠는가? 결국 우리는 그 틀 안에서 반응하는 것이다. 왜냐면 공동체의 회복력은 생존과 그들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개인이 어떻게 공동체, NGO 그리고 CBO에 참여할 것인가와 같은 전반적인 문제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좋은 사례란 무엇인가? 여기 모인 몇몇 사람들이 강조한 바와 같은 적절한 사례를 미래에 그려 낼 수 있을 것인가?

자원봉사 *volunteerism*의 개념과 사회적 책임의 개념도 몇몇 참가자들에 의해 언급되었다. 이는 무형유산보호활동과 공동체의 핵심적인 책임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서구에서 인식되는 개념이지, 대부분의 아태지역에서는 생소하다. 대신 이 지역에서 사회적 책임과 세대간 책임에 대한 의식은 매우 강하다. 하지만, 이해관계로 얽힌 공동체 안에서 무형유산의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지역에서 도입한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그려내고 다양한 지식을 나누어야 한다.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목록과 함께 기록화 작업이 논의의 주제로 대두되었다. 세계박물관협의회 기록위원회는 무형유산을 다루는 새로운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캐나다 오타와에 소재한 캐나다 문화유산정보네트워크 *CHIN*는 문화다양성과 무형유산의 기록화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기록화 방법

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또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표준화가 무형유산의 문화적 다양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지적되었다.

주최측인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무형유산의 기록화, 목록화 사업을 통해서 몽고, 베트남, 인도와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이행해 왔다. 이러한 프로젝트와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는 리 박사가 강조했듯이 역량강화를 위해 매우 유용하다. 참가자들은 목록개발에 있어서 위계를 세우거나 등급을 매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으며, 이는 협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적, 문화재적 권리에 관한 질문이 관심을 끌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 분야의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데 공감했다. 세계지적재산권 기구의 벤드랜드 과장과 한국 참가자들은 다른 시사점을 제안했고 토론 과정에서 무형유산의 보호를 위해 전승자와 전수자의 권한위임과 불위임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제가 도출되었다. 벤드랜드 과장이 지적했듯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에게 관한 정보를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토착적이라는 개념은, 태평양지역에서는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많은 나라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여전히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형유산협약,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보편선언, 그리고 유엔토착민 권리에 관한 선언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입장이 있었다. 언어다양성과 무형유산의 취약성 그리고 언어 유산이 토착민 사이에서보다 더 명백하게 드러나는 곳은 없다. 생명력이라는 것은 자신의 언어적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서 무슨 의미를 지니는 지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위한 중요한 이슈이다.

마지막으로 불교문화의 자타카(Jataka)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 이것은 코끼리를 보고 싶어하는 일곱 명의 장님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고타마 부처에게 관한 이야기다. 한 명은 코끼리 다리를 잡고 '아,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네'라고 생각했고 다른 이는 코끼리 꼬리를 잡고 '아, 코끼리는 부채나 총채 같다'라고 말했고, 다른 이는 귀를 만지고 '코끼리는 곡식을 거르는 통처럼 생겼다'고 했다. 그렇게 각각 코끼리의 다른 부분을 만지고 코끼리에 대해 아는 것에 만족한 것이다. 이는 어쩌면 열반(nirvana)에 관한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무형유산보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 가지 방법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유산의 발전을 위해 생각하고, 진실을 밝혀내고 현재의 접근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무형유산을 보호해 나가기 원하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무엇이 보호이고 주요 공동체에서 생명력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을 고려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는 문화다양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의와 같은 포럼, 토론, 소통의 장이 더 많이 필요하다. 아태지역의 다른 두 센터의 책임자인 일본에서 온 시게유키 미야타 부장 그리고 중국의 지양동 단장을 초청한 데 대해 한국 아·태무형유산센터 측에 축하 인사를 전한다. 이란의 센터와 함께 아태지역은 무형유산분야 4개의 센터가 설립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아태지역에는 세계인구의 60%가 살고 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상호 보완 협력할 수 있는 카테고리 2 센터가 다수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활동에 태평양 국가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태평양 지역은 인구의 90%가 토착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언어유산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다. 태평양국가는 종종 세계에 존재하는 물의 1/3을 차지하는 수중대륙이라고도 불린다. 무형유산인 보카 모나 *Voka Mona*는 주요 유네스코 프로젝트이자 현재 순회전시의 중요한 주제인데, 태평양지역에서 무형유산과 그 다양성을 언급하면서 독특한 섬나라의 단합을 이끌어냈다.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박성용 소장의 노고를 언급해야 하겠다. 또한 이번 회의를 상호 소통적이고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에 대해 박 소장님과 센터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이번 회의를 통해 특히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무형유산 대표목록과 긴급보호목록의 첫 번째 심사 이후에 우리가 무형유산협약과 그 적용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박 소장이 그의 기조연설에서 강조했다듯이, 정보의 공유와 전략적인 네트워크는 아태지역 무형유산보호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는 협약, 조약, 헌장, 선언, 권고문과 같은 국제규범에 우리의 경험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아·태무형유산센터와 지역의 다른 카테고리 2 기구들은 아태지역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이들이 인류 공동의 유산인 아태지역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고,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